멜라민 공포 확산

해태 과자서 검출…주부들 경악

OEM 방식 관리 허술…광주·전남도 대량 유통

국내 유명 과자회사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중국발 식품 공포가 또 다시 확산되고 있다.

멜라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 등은 광주·전남지역에도 대량 유통됐다가 24, 25일 이틀동안 긴급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 식품 불안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멜라민 사태는 중국 현지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의 문제점과 허술한 원산지 표시 등 허점을 그대로 노출했다.

◇"자녀 간식도 불안"=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와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이 수입한 '밀크러스크'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주부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25일 오후 마트를 찾은 주부 이진영(39·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아이들이 즐겨 먹던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듣고 현기증이 날 뻔 했다"고 경악했다. 이씨는 "생쥐 머리 새우깡 이후 설마 했었는데 또 다시 유명 회사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기회에 직접 쿠키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이거나 비싸더라도 유기농 간식거리를 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동구 계림동 모 할인마트에서 과자를 산 김선아(여·40·광주시 동구 서석동)씨는 "아이들의 간식으로 어떤 과자를 사야할지 모르겠다"며 "끊임없이 먹을거리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대체 정부는 뭘했는지 모르겠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OEM 생산 허점, 허술한 원산지 표시=문제가 된 '미사랑 카스타드' 등은 우리나라 업체나 다국적 기업이 중국 현지 업체에 OEM 방식으로 생산하게 한뒤 한국으로 역수입된 케이스다. 그러나 제품생산을 주문한 회사가 생산회사의 품질관리에 거의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파견한 감독자가 직접 현지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인력이 적다 보니 세부적인 품질관리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은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과자가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사실상 '중국산'이란 사실을 알수 없다. 중국산으로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산'으로 표기돼 있기 때문이다.

▲멜라민(Melamine)이란? =멜라민은 주방기구 등 플라스틱 제품이나 접착제·페인트 제조 등에 주로 쓰이는 공업용 유기화합물이다. 멜라민이 몸에 들어가면 신장결석, 신장·방광암의 원인이 되며 신부전으로 발전해 숨질 수도 있다. 멜라민의 주원료인 석회질소가 결석을 형성해 세뇨관을 막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멜라민이 들어있는 분유를 먹고 신장 결석 증세를 보인 아기가 5만3천명에 육박하고, 4명은 목숨을 잃었다.

식약청은 멜라민 사태로 인해 원산지 문제가 논란이 되자 원산지 표시를 담당하는 농림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뒤늦게 요청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전량 회수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광주시 서구 모 대형할인마트에서 한 주부가 리콜 안내를 받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멜라민 검출 과자 5종 회수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 검출과 관련해 회수·폐기 대상 중국산 수입 과자류는 25일 현재 5품목 13만4천15kg에 이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까지 멜라민이 검출된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를 제조한 중국의 천진가년화국제유한공사와 ㈜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이 수입한 '밀크 러스크'를 제조한 캄타이 인베스트먼트 트레이딩에서 생산된 과자 5종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천진가년화국제유한공사 미사랑 카스타드(11회 수입) 7만6천907kg ▲천진가년화국제유한공사 미사랑 코코넛(2회 수입) 1만2천190kg ▲캄타이 밀크러스크(5회 수입) 1만4천260kg ▲캄타이 데니쉬버터쿠키(5회 수입) 3만110kg ▲캄타이 포테이토크래커(1회 수입) 548kg으로 총 회수대상 물량은 13만4천15kg이다.

식약청은 5개 품목 외에도 제조회사가 동일하고 유가공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회수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또 멜라민 검출을 계기로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의 수입을 당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올들어 18일까지 수입된 우유 및 유가공품 함유 중국산 식품 428종(수입신고 1천845건) 1만8천195t에 대해 멜라민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회 복지위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발암성 물질과 중금속 등이 검출돼 폐기된 중국산 조리기구·용기가 235t에 이른다고 식약청 자료를 인용해 25일 밝혔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부적합 조리기구·용기 59.5t(23건)이 폐기됐으며 지난해 32.5(16건), 올들어 6월까지 폐기량은 56.5t(12건)으로 집계됐다.

/안현주기자 ahj@·연합뉴스

골프장 경영권 탈취 기도 골프클럽 대표 등 둘 기소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재권)는 25일 명의신탁 받은 지분으로 골프장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 함평 모 골프클럽 대표 김모(44)씨와 이사 한모(40)씨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경기도 모 상호저축은행에서 주주명부상 자신들의 명의로 등재된 주권 등을 담보로 60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함평 모 골프장 건립에 투자한 혐의다.

검찰은 한씨가 김씨와 짜고 주주총회를 무효화시킨 뒤 회사 경영권 탈취를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허위 간병경력 증명서 발행 퇴임 보건 공무원 60대 구속

보건직 공무원을 퇴임한 60대 여성이 간병인협회를 운영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허위로 간병경력 증명서를 발행해오다 구속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지난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신설됐지만, 경력에 따라 교육시간에 차이가 커 그동안 자격증 발급과정에 불법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사왔었다.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 사법처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판사 양부남)는 '간병××협회'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김모(여·50)씨 등 14명에게 돈을 받고 허위 간병경력 증명서를 발행해 준 전 보건직 공무원 조모(여·63)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5년 전부터 광주시 동구 학동에서 '간병××협회' 사무실을 운영해오던 중 지난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자 간병경력이 없는 김씨 등에게 50만원씩을 받고 협회명의로 경력증명을 발행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받아야하는 교육을 일부 면제받게 해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돈을 건넨 김씨 등이 대형병원에서 1년 이상 간병을 했다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교육기관인 광주 B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보내 240시간 의무 교육시간을 160시간으로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김씨 등 14명 이외에도 자격증 취득자 50여명에게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행했다는 진술에 따라 범죄사실을 추가할 예정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원참 〈7611〉 김종두

김재균 의원 다음주 소환 조사

검찰이 북구의회 의장선거 뒷돈거래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구을) 의원을 다음주 중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인 주모(55·구속)씨가 진 채무 수억원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가 다음달 9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시효 만료 전에 출석,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부인 주씨의 채무 4억원이 누락된 사실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며, 특히 김 의원이 채무누락 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허위 신고를 묵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신고 누락된 채무의 상당 부분은 김 의원의 형이 사업하다 안게 된 빚을 주씨가 떠안게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광주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김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는 채무의 성격과 재산 신고액 누락 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가 관건"이라며 "현재 김 의원은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방 주인 화상 입히고 달아난 50대 분신 중태

광주에서 다방 여주인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택시를 타고 강진까지 가서 분신을 기도해 중태에 빠졌다.

25일 강진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께 강진군 강진읍 교차로에서 김모(51)씨가 택시 안에서 자기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노동자인 김씨는 전날 오후 7시10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다방에서 여주인 A(44)씨에게 '옆자리에 앉아 보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A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자신의 고향인 강진으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KCC 대표 건축·산업자재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제작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마트 계산원, 남편과 짜고 물건 빼돌려

쌍나팔

○…할인마트 계산원인 40대 여성이 남편과 언니와 짜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빼돌리다가 경찰에 덜미.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C(여·40)씨는 지난 6월11일부터 두 달 동안 광주시 광산구 모 할인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가장한 남편(41)과 언니(45)가 쌀과 반찬 등을 가져오면 계산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25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물건을 빼돌렸다는 것.

○…할인마트 측은 판매된 상품 액수와 수입이 맞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겨 CCTV 분석 등을 통해 채씨의 범행을 적발했으며, 지난 8월 C씨를 해고했으나 보상 문제 등에서 합의하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경찰은 조사결과 C씨 등에게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으며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